

‘적요’라는 용어는 생소한데, 이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.

“적요는 송금인, 수취인 정보라고 생각하면 된다. 홍길동씨가 김철수씨에게 돈을 보낼 때 홍길동과 김철수라는 정보가 적요가 되는 것이다. 마이데이터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규격에서 적요가 제외되면, 송금·수취인 이름이 ‘알수없음’으로 표기될 수 있다.



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면, A 통장에는 ‘B에게 100만원’이라고 표기되고, B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. 하지만 마이데이터 제공 내역에서 적요 정보가 제외되면 B의 이름을 알 수 없다. ‘정보없음’으로 표기된다.

이미 많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가계부나 입출금내역 관리 서비스에서 송금·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. 이 또한 원래 받던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.”